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0’ 개최



▲ 국토해양위 송광호 의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0’이 지난 10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토해양위 송광호 의원이 주최하고 건교투데이가 주관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0’이 지난 10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송광호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가 급격한 건설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급증 등으로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소 업체 간 구분을 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상생협력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에 가교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을 해치는 저가낙찰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위주의 입찰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목표는 ‘상생’이라고 지적하며 “발주자·원도급사·협력업체의 삼각공조는 건설산업 발전의 근간이므로, 지금의 어려움 해결을 상생협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 등에서 상생협력 강화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기업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상생저해요인을 찾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이 건설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이를 해치는 저가낙찰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위주의 입찰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확대 방안 -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 파트너링 방식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민수 실장은 “현재의 도급생산 구도에서 하도급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 제도를 강화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을 좌장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 부동산부 차장, 심영우 정암ENC 사장, 이문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정승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조상래 대림산업 상무,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에서는 △하도급대금 장기어음 지급 폐지 등의 제도적 보완 △건설 생산방식에 관한 원-하도급사의 수평적 관계 형성 △원-하도급사의 쌍방 인식 변화에 필요한 신뢰 구축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편, 조현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원·하도급 상생입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조현일 실장은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원·하도급사 간 상생을 위하여, 입찰시 하도급사의 시공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5년에 국내에서 폐지된 부대입찰제도와 유사하다”면서 “원·하도급사 상생을 위해 시공능력과 입찰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면서도 악용 여지가 없는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